

제21장 초대 이방 기독교

이방 기독교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유대계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으로 유발된 예루살렘 회의, 그 후에 안디옥을 넘어서 더 넓은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바울의 전도 여행을 알아보게 됩니다.

1. 안디옥 교회 : 안디옥은 주전 300년에 창건된 도시로서 육로, 해로의 편리한 교통으로 인하여 상업상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도시 초창기부터 이미 여러 종류의 민족들이 혼합하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상업 도시로서 물질이 풍부했기 때문에) 문화 교류가 빈번했고 이 요인들로 인해 종교는 혼합주의적인 색채를 띄게 됩니다.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 중 몇몇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이곳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자 기독교 역사상 견고한 조직을 갖춘 두 번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호칭을 받은 것은 안디옥이 처음이었습니다. Christos(그리스도)에 -ianos(어떤 사람의 노예들/그의 다른 식구들)를 붙여 Christianoi(그리스도의 종들)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세계에서야 기원할 만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히브리어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지 않고 '나사렛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단 세 번만 나오는데 그마저도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썼다고 하기 보다는 비기독교인들이 쓴 호칭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호칭을 2세기가 되어서야 스스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율법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약속한 사람들만 유대교에서 개종자라고 불렀습니다. 입회식 중 할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남자 이방인이 개종하려 할 때 큰 장벽이었습니다. 유대주의 (유일신 예배와 생활양식)에 형식적으로 적만 두는 것으로 만족하였던 이방인들에게는, 기독교가 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특권을 부여했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애당초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초창기부터 할례는 교회 가입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특권이 부여되기 1, 2년 전 이미 베드로에 의해서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와 그의 가족이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교인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유대 기독교 신자들은 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2. 예루살렘 회의 : 이 갈등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었고, 이 회의를 통해 해결되었음으로 예루살렘 회의는 첫 교회 공의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회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글라우디오가 통치할 때 가뭄과 흉작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의 가난한 자들은 식량을 구입할 만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 아가보로부터 임박한 기근의 예언을 듣고 유대인 형제들을 구제하고자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헌

금을 들고 가는 대표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의 환영을 받고 함께 만나게 되었고 두 교회의 지도자들 간에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전도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즉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에게 부여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도권을 인정하면서 두 교회는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 것을 결의하였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는, 이방교회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회의, 첫 교회 공의회는, 세계 선교의 기초를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움으로 그 후에 열방을 복음화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 회의가 되었습니다.

3.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 예루살렘 회의 후에 성령의 계시를 받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1차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남부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브로 섬에서는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점성가였던 바예수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두 설교자들에게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아시아로 가는데 특히 남쪽에 있는 도시들은 헬라화된 로마영지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내륙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첫 번째로 방문하는데 이 도시는 그 지역의 행정상, 군사상 중심지였습니다. 그 후 이고니온을 방문하는데 이고니온은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용한 선교 방법은 해당 도시에 있는 회당을 먼저 찾아 가서 유대인들과 또한 완전히 유대교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안식일에 지명 받은 자나 지원자가 설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주전 200년 경에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인 2,000세대가 이주를 명령 받아서 유대인의 숫자가 많고 세력이 컸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했고, 소수의 유대인도 회심했습니다. 이후 유대 지도자들과는 반목을 거듭하는데 이러한 일을 계기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후 선교 방향을 이방인으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후 찾아간 루스드라와 더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회당이 있는 도시에서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여러 예언과 이스라엘의 사건들이 듣는 자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었지만 이곳에선 그렇지 않았기에 다른 접착점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토착민들이 이교적 예배 의식에 열심인 것을 보고 더욱더 복음을 강조하며 열심히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였던 도시들을 재방문하며 교회를 조직하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